한국남부발전(주) 보도자료

날짜 2025. 11. 3.(월)

한국남부발전, 통영시와 '굴패각 자원화' 협력

- 버려지던 굴패각, 발전소 미세먼지 잡는 '석회석 대체제' 로 재탄생 -

- 통영시 현안 해결, 지역경제 활성화, 미세먼지·탄소 감축까지 '1석3조' 기대 -

□ 한국남부발전(주)(사장 김준동, 이하 '남부발전')은 통영시와 11월 3일 통영시청에서 굴껍데기인 굴패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의 대체제로 활용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.

□ 이번 협약은 막대한 양의 굴패각 처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통영시의 고질적인 환경문제 해소와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남부발전과 통영시가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.

□ 그동안 발전소에서는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광산에서 채굴하는 석회석을 사용하여 왔으나, 석회석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및 채굴비용 증가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.

□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남부발전은 어촌지역에서 다량 배출되지만 적절한 재활용이 어려웠던 굴패각에 주목하게 되었고, 2025년 10월 하동빛드림본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을 통해 굴패각의 미세먼지 저감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.

□ 특히, 굴패각을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제로 상용화하기 위한 남부발전의 이번 시도는 국내외에서 전례가 없는 사례로, 해양 쓰레기로 취급받던

굴패각을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새로운 지역상생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□ 본 협약을 시작으로 남부발전은 '굴패각의 석회석 대체 활용사업'의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및 지속적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, 통영시는 굴패각 수거 및 정제 시스템의 최적 운영을 통해 균일한 품질의 굴패각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.

□ 이를 통해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감축은 물론, 굴패각 정제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, 고질적인 굴패각 처리현안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□ 협약식에 참석한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"굴패각 재활용은 단순한 미세먼지 저감제의 대체를 넘어, 남부발전의 혁신적인 환경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"이라며, "정부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고,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친환경 발전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."고 밝혔다.

남부발전 김준동 사장(왼쪽 세 번째)과 통영시 천영기 시장(왼쪽 네 번째)이 3일 통영시청에서 『미세먼지 저감용 석회석 대체, 굴패각 활용 사업』 업무협약을 체결 후,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

담당 부서	홍보실	담당자	대리	홍승화	(070-7713-8172)
	기후환경부	담당자	차장	하헌민	(070-7713-8833)